

노후주거지 개선방안으로서 경관협정의 가능성에 관한 연구

- 광진구 중곡4동을 사례로 -

Improving Old residential Neighborhoods through Urban Landscape Agreements: A Case study of Joong-Gok 4 Dong Community Design

○박민정* 박소현**
Park, Min-Jeong Park, So-Hyeon

Abstract

Housing redevelopment accompanied by overall neighborhood clearance and removal has been popular methods in improving deteriorated old residential areas in Korea. Recently, however, critical issues such as dismantlement of existing communities, loss of affordable housing stocks, and provision of monotonous housing forms and urban landscapes have been widely recognized as negative results of the total redevelopment. As alternatives, housing improvement projects respecting the existing fabrics of the neighborhood and participatory community planning approaches became more significant than before.

The goal of this paper is to explore another alternative for improving old residential neighborhood through Urban Landscape Agreements, a brand-new approach based on the 2007 Landscape Law. The site is Joong-Gok 4 Dong in Gwangjin-gu, one of the model cases of the Design Seoul Village Project. Through the process of morphological study of housing clusters, interviews with residents, design workshops, public hearings, and expert meetings, diverse suggestions on the neighborhood improvements are proposed, some of which would be carried out in 2010. In this study, two of them are investigated in-depth first, subdivided small-scale clusters by housing types and forms of the village could work as desirable bases to draw residents' agreements and design elements; second, the method of participatory process considered from residents' positions need to be designed third, illegal extensions obstructed the improvements would be approached institutionally to make the project effective.

키워드 : 노후주거지, 소규모 클러스터, 경관협정, 마을 만들기, 주민참여, 디자인가이드라인

Keywords : Old Residential Neighborhoods, Neighborhood Clusters, Urban Landscape agreement, Community Design, Participatory Planning, Design guidelines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지금까지 노후주거지의 개선방식은 대부분 전면철거를 동반한 합동재개발이 일반적 해법이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기존 커뮤니티의 해체, 저소득층의 거주지 상실, 획일화되는 주거 유형 및 도시 경관 등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현지개발사업 및 참여형 마을만들기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증가하였다. 더불어 재개발지구로 지정된 지역 주민들이 잇따라 지구 해제를 요구하는 사례가 보도되는 등 기존의 개발방식에 대한 재고가 절박해지고 있다.

예로, 현재 서울시에서는 2007년 제정된 경관법에 근거한 경관협정을 통해 노후주거지의 환경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시범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노

후주거지 개선방안으로서의 경관협정의 가능성 모색을 위해 경관협정의 주민참여형 마을만들기 운영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더불어 향후 노후 주거지, 특히 개별 주택 등 민간영역의 환경개선에 있어서, 철거 정비가 아닌 개별 요소의 개선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도시건축적 시사점을 탐구해보고자 한다.

1.2 연구의 방법

먼저, 합동재개발 이외의 개발방식인 주거환경개선사업 현지개발방식에 대한 선행연구를 통해 지금까지 재개발된 사례들의 문제점과 시사점에 대해 정리하고, 경관협정 제도 및 가능성에 대해 살펴본다. 그 후, 광진구 중곡 4동을 사례로 기존 사업의 대안으로서의 경관협정의 역할과 사업 추진에 있어서의 쟁점과 가능성을 도출한다.

2. 이론적 고찰

2.1 선행연구 분석

*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부교수, 도시설계·계획학 박사
2) 정지섭, 재개발 반대 성북구 주민들 "멀쩡한 집 부수고 짓는 아파트 원치 않아", 조선일보. 2008.12.24.

현지개발사업은 1989년,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 이후, 80%가 넘는 구역이 현지개발방식으로 지정³⁾ 될 만큼 전면철거방식에 대응하는 점진적 정비수법으로서의 기대가 컸던 사업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제도 시행초기에 사업 추진을 위한 건축 규제 완화 조치로 인해, 노후 건축물의 개선은 촉진되었으나, 개발이익 위주의 난개발이 이루어짐으로써 원룸 등 다가구주택이 증가하고 과밀불량주택이 양산되어 부정적 결과도 함께 낳게 되었다⁴⁾.

이와 관련된 연구는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점차 그 수가 증가하여 근래에 들어 관심이 집중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연구 경향은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수법의 개발, 사례연구를 통한 정비방향 모색이 주를 이루고 있어, 대부분의 연구에서 현재의 정비방식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 중 사업에 대한 개선책을 제시한 최근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 신중진 외(2005)는 가장 큰 원인으로 지역 특성이 배제된 사업계획을 꼽고 있으며, 획일화된 정비수법 역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김찬호 외(2006)의 연구는 지역별, 거주형태별 설문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서로 다른 조건에서는 요구사항 및 만족도에 차이가 나타남을 보여주고 있다. 이창호 외(2007)와 김현진 외(2008)는 해외 노후주거지 정비수법을 분석하고 국내 사업과의 비교를 통해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나아가 배용규 외(2008), 문준경 외(2008)는 구체적인 대상지 조사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에 따른 정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 연구결과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문제점과 이에 따른 개선방안은 다음 표1과 같다. 이는 지금까지의 전형적인 사업방식으로는 더 이상 물리적 정비 이상의 결과를 얻을 수 없음을 시사하고 있다.

표 1. 공통적으로 제시된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문제점 | 개선방안 |
|---|---|
| 1. 난개발 2. 도로정비 위주의 사업방식 3. 지역여건에 대한 고려 미흡 | 1. 지역 특성에 맞는 정비 체계 구축 2. 점진적인 정비 체계의 구축 3. 참여주체 간의 역할 분담 및 연계 |

2.2 경관협정 사업의 내용 및 의의

경관협정은 경관법에 의거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및 주거지 경관 형성을 위해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본인들의 재산권에 대한 규제 내용을 체결하는 일종의 주민약속으로, 환경개선은 물론, 방재, 방범, 쓰레기 문제 등 거주환경 전반에 있어서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자율적인 규칙 수립을 통해 모색한다는 점에서 물리적 개선에 의존해왔던 기존 사업과 차별성을 가진다.⁵⁾ 더불어 지역 고유 경관을 유지하고 그 특성을 살린 계획을 유도한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또한, 일시적인 사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협정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또한 이에 의

3) 배용규 외., 밀집시까지 현지개발방식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의 유형화 및 정비방향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계획계, 24(9), 2008

4) 문준경, 한성천, 채병선,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효과분석을 통한 개선사항에 관한 연구, 도시설계, 10(2), 2009

5) 국토해양부, 경관협정 수립 매뉴얼, 2008

표 2. 경관협정제도 도입 배경

| 문제점 인식 | 필요성 |
|--|---------------------|
| • Top-down식 제도의 한계 • 다양한 분야의 참여 요구 • 지속적인 유지·관리 미비 • 지역특성에 맞는 경관 조성 | 자발적 주민참여 경관관리 조직 |

표 3. 경관협정의 법적 절차

| | |
|----------------|---|
| ① 경관협정운영회 설립 | • 경관협정 체결자 과반수 동의 • 시장 등에 신고 |
| ② 경관협정서 작성인가신청 | • 협정명칭, 대상지역의 위치 및 범위, 목적, 협정내용, 유효기간, 위반시 제재사항 등 • 소유자 전원합의 |
| ③ 경관위원회 심의 | • 협정안 타당성 검토 |
| ④ 경관협정 인가공고 | • 인가 즉시 공고 |
| ⑤ 경관협정 발효 | • 건축 및 개발행위 등의 행위시 준수 |
| ⑥ 경관협정 변경 및 폐지 | • 변경은 협정절차와 동일 • 폐지는 소유자 과반수 동의 |

표 4. 경관협정 대상 분류

| 기본항목 (경관법) | 세부항목 |
|-----------------------------------|--------------------------|
| 건축물 외관에 관한 사항 | 입면디자인, 지붕 및 차양, 창문 및 쇼윈도 |
| 건축물의 대지 및 옥외에 설치되는 건축물의 위치에 관한 사항 | 건축설비의 위치에 관한 사항 |
| 건축물 및 공작물 등의 외부공간에 관한 사항 | 주차시설, 담장/울타리/대문, 부지 경계공간 |
| 토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사항 | 획지·건축물의 규모, 부지의 용도 |
| 기타 | 도로, 수변공간, 야간경관 및 조명 |

거하여 동네 경관을 점진적으로 유지 보수해 나가는 것이므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며, 협정 내용도 체결자가 전원합의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표4와 같이, 그 동안 공공사업에서 다루기 어려웠던 개인주택 등 민간영역에 있어서도 경관 상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에 포함시켜 동네 경관의 총체적 디자인이 가능하다.

2.3 경관협정의 가능성

첫째, 선행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도로 정비 위주의 사업이라는 문제점에 있어서, 경관협정은 민간영역으로까지 대상 범위를 확장하고, 주민의 의견에 따른 항목 지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는 대안을 기대할 수 있다. 둘째, 전문가들의 관찰적 접근보다는 실제로 생활하는 거주자 입장에서의 접근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정비가 진행가능하다. 경관협정사업에서는 맺어진 협정에 의한 동네의 유지관리를 조건으로 공공에서 투자를 하는 것인 만큼,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의지만 있다면 지역 맞춤형 협정 체결을 통해 점진적 개발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셋째는 전문가의 역할이다. 공공과 주민 사이에서 의견 조율은 물론, 전문지식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갖는 주민들을 위해 적절한 조언과 행정적인 업무 절차를 돕는 인력의 배정이 법으로 명시화 되면서 사업이 좀 더 주민들에게 쉽게 다가설 수 있게 되었다.

6) Ibid.

경관협정 대상 분류표 중, 일반 주거지 관련 항목만 추려내어 정리

표 5. 공공영역에서의 개선방안 및 주민 약속

| 논의대상 | 개선방안 | 주민약속 | |
|---------------|----------|--|---|
| 차량통행 및 주차 | 차량진입 | 노을3길-공원 입구의 블라드 탈착식으로 교체 화단 쪽으로 도로를 넓히고 인접한 176-8호에 완충공간 조성 | 비상시에만 개방하거나, 노을길~노을3길로 일방통행화 마을 내에서는 서행, 안전운전, 양보운전 |
| | 주차 | 미구획지 중 주차 가능한 공간에 주차면 신설 | 차량에 마을주차스티커를 부착, 지정 장소에 주차 주민(경관협정운영회)이 스스로 마을주차구역의 운영과 관리 담당 |
| 안전 (이동/화재/방범) | 급경사/보행안전 | 급경사 구간에 난간 및 계단을 설치, 이용하기 편하도록 개선 동결기 제설함은 동사무소와 협의하여 필요한 위치에 비치 | 제설, 낙엽 쓸기 등 골목길 관리를 주민들이 구역을 분담 |
| | 화재예방 | 마을 내부에 소화전 추가 설치 | 소방안전교육을 통해 화재 발생시 대처 방법, 소화전 사용법 숙지 책임자를 정해 소방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 관리 |
| 쓰레기 | 방법 | 용마공원 주변에 CCTV를 설치 | |
| | 배출 및 수거 | 마을 내 주요 쓰레기 공동수거 장소에 공동 수거함 설치 재활용품 분리 수거함 설치 | 공동 수거함 주변이 깨끗이 사용, 관리 쓰레기 배출 장소 및 시간 준수, 분리수거에 적극 동참 |
| | 무단투기 | 무단투기가 상습적으로 일어나는 장소 개선 | 주민이 함께하는 마을 대청소를 주기적으로 시행 |
| 자투리땅 및 기타 | 음식물 | 원하는 가구에 한해 음식쓰레기를 퇴비화하는 지렁이화분 분양 | 음식쓰레기는 가급적 배출하지 않고 퇴비화, 화분과 텃밭에서 활용 |
| | 방치된 자투리땅 | 용마공원 저류지: 수변공간조성, 전망대: 전망대를 겸한 주민 휴식공간으로 조성 예정 용곡초등학교 옹벽: 옹벽 보수 후 조경 정비, 기타 자투리 땅: 주차장, 텃밭, 워터, 놀이터 등 | 조성된 워터가 방치되지 않도록 함께 아끼고 가꾸기 |
| | 텃밭, 화분 | 기존의 텃밭과 화분을 더 쓰기 좋고 보기 좋게 개선 | 텃밭 가꾸는 주민은 주변을 깨끗하고 안전하게 관리 화분 내놓는 위치, 크기와 개수 등에 대한 규칙 정하고 지키기 |
| | 마을지도 | 길 찾기 쉽도록 마을 지도를 작성, 경로당 아래 옹벽에 설치, 집집마다 어울리는 문패 걸기 | |

3. 사례 분석: 광진구 중곡4동

중곡 4동(8)은 70년대에 지어진 단독주택을 중심으로, 다세대, 다가구 주택이 혼재해 있으며, 20-30년의 장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주민들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자연요소가 풍부하며, 주민들 역시 골목에 화분을 내 놓고 키우거나, 자투리땅을 텃밭으로 이용하는 등 도심과는 다른 생활양상을 보이고 있는 곳으로 이러한 특성을 살리면서 노후화된 시설, 불편했던 사안을 개선하여 계속해서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마을 만들기가 목표가 되었다.

3.1 진행 현황 및 현황 분석

주거군 형태 연구 및 주민 인터뷰(9)를 거쳐 현황을 파악한 후, 각각의 문제점을 정리하여 주민 전체 회의와 워크숍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였다. 다루어야 할 내용의 범위와 깊이에 차이가 있어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으로 나눠 진행하였다. 공공영역에서는 도로 및 공공공간 전반에 관한 사안을, 민간영역에서는 개별 주택에 관한 사안을 다루었다.

(1) 공공영역

공공영역에서 논의된 문제점은 크게 4가지로 요약되며, 내용은 표5(10)로 정리하였다.

(2) 민간영역

민간영역에서의 사업 대상은 건축물과 그 외 시설물로 나뉜다. 건축물은 담장과 대문, 지붕과 외벽, 창문과 차양을, 그 외 시설물은 조경, 실외기, 쓰레기통, 흙통, 주택 경계부분을 포함하며, 사유재산일지라도 운영회를 통해 마을의 경관을 구성하는 중요 요소로 협의가 된 항목을 다루게 된다. 그러나 작은 동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7) 서울시의 디자인서울 빌리지 시범사업(2009)으로 현재 공모를 통해 선별된 강북구, 양천구, 광진구에서 진행 중이며, 중곡 4동은 그 중 광진구에 속해있다.

8) 용마산 자락에 위치한 구릉지 마을로 상경민들이 무허가 주택을 짓고 정착하면서 형성되었다.

9) 경관을 구성하는 요소가 도로나 공터, 공공시설 뿐 아니라 개별 주택의 외관 전반을 포함하기 때문에, 마을 전반에 관한 분석과 더불어 각 골목길, 개별 주택의 정확한 상황 파악을 위해 주거군 형태 연구 및 수차례에 걸친 주민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10) 중곡4동 경관협정 준비위원회, 소식지 “우리가 만드는 용마마을”, 2009.08.03

그림 1. 구역 특성에 따른 소규모 클러스터 분류



협정안을 일괄적으로 적용하기에는 구역에 따라 다양한 특성을 지니고 있어 원활한 의견 수렴이 어려웠다. 이에 일본의 밀집시가지정비 사례(11)를 참고하여, 동일한 문제점을 공유하는 보다 소규모 구역을 최소 단위로, 마을의 고유 경관인 각각의 특성을 살려 협정안 체결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였다. 클러스터 설정 기준은 첫째, 출입구를 같은 길에 면하고 있는 건물군, 둘째, 출입구 위치는 다르더라도 하나의 풍경을 이루고 있는 건물군, 셋째, 주택의 크기, 생김새, 종류가 유사한 건물군이다. 기준 작성에는 건물 유형, 길의 폭과 성격 등이 영향을 미쳤으며, 이를 통해 중곡 4동은 그림(12)과 같이 총 7개의 클러스터로 나뉘었다. 클러스터 별 워크숍을 통해 구역 특성에 맞는 사업 대상을 선정하고 개선안과 주민약속을 끌어냈다.

7개의 클러스터 중, 중곡 4동의 특성을 가장 잘 드러내

그림 2. 노을 4길 경관



11) 동경도 아라카와구 근린마을만들기 사례로, 개별 필지 단위의 건축기준법 일반규정과 가구(街區)를 최소단위로 하는 도시계획법의 지구계획제도의 중간 단위인 근린단위에 초점을 맞춰, 골목을 공유하며 이웃하는 최소 6단위의 주택부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2) 중곡 4동 경관협정 준비위원회, op. cit, 2009.08.03

그림 3. 대상지 현황(좌)와 개선안(우)



고 있는 노을 4길 구역을 예로 민간영역에서의 문제점을 살펴본다. 이 구역은 2m 남짓의 좁은 골목을 따라서 단독주택들이 마주하고 있고, 이들은 대부분 마당이 없거나 실내공간화 되어 골목에 화분을 내놓고 가꾸고 있다. 골목 입면은 담장과 증축되어 외벽화 된 담장, 그리고 주변 규모에 비해 과도한 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길은 경사가 급하고 포장 상태가 불량한 상태이다.

경관협정을 통해 다룰 수 있는 항목을 정리하면 그림 313)과 같다. 이 중에서 클러스터 별 워크샵을 통해 주민들 간의 논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필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우선순위와 개선 후의 유지관리를 위한 약속을 결정하게 되는데, 노을 4길 구역의 경우, 도로와 담장, 대문, 화분, 방범창 등이 이슈로 떠올랐으며, 협의 결과, 노후화된 도로 포장, 제 각각인 담장 높이 및 형태의 통일, 증축된 창고 및 외벽화 된 담장의 미화, 대문의 재질 변경을 통한 시각적 경량화, 규격화된 화분의 도입과 같은 사업 우선순위로 정비 대상이 정리되었다. 워크샵에서는 이들 대상의 형태이나 재료, 크기 등에 관한 디자인 측면에서의 심도 있는 논의가 가능했으며, 특성에 따른 구역 설정에 의해 평소에 유사한 문제점을 안고 있던 주민들이 모여 유지관리 약속에 있어서도 어려움 없이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3.2 시사점

첫째, 민간영역은 구역에 따라 주된 관심사에 차이가 있고, 그 특성이 천차만별이라 공통된 주제로 논의를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기존의 사업지구에 비하면 경관협정 사업지구는 애초부터 매우 소규모이나, 지구 전반에 일괄적 기준을 적용하기에는 여전히 통일할 수 없는 다양함이 내재되어 있다. 지역 특성을 살린 정비를 위해서는 구역 특성에 따라 소규모 클러스터를 조직하고, 공통된 문제의식을 가진 주민들끼리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경관협정사업은 물리적 개선보다,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주민약속에 더욱 초점이 맞춰진 사업이므로 주민의 참여 정도가 사업의 관건이다. 문제점 찾기부터 대안 모색에 이르기까지 주민주체로 가는 것이 이상적이나 현실에서 주민들은 여전히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끌어내기 위한 회의 및 워크샵 방법론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노후주거지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증축문제에 대한 제도적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중곡 4동 역시 협소한 거주공간에 대한 대안으로 불법 증축행위가 다수 일어나고 있으며 대부분 샌드위치 패널,

슬레이트 등 안전과 미관상 좋지 않은 재료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법규 상, 이는 엄연히 불법 건축물이므로 사업을 통한 개선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없어 갈등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현지개량사업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경관협정에 대해 살펴보고, 경관협정사업의 가능성을 모색해 보았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기존의 마을 유형과 조직을 유지하면서도 효과적인 환경개선의 가능한가 여부를 분석해 보았는데, 지역의 특성을 살린 경관 계획, 주민주도형 진행방식, 전문가의 적절한 역할 수행 등 기존 사업에서는 실행하기 어려웠던 수법이 작동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물리적 정비와 함께 유지관리에 관한 주민들의 자발적 약속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한편, 마을 현황을 분석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시사점을 도출 할 수 있었는데, 첫째, 지역경관 특성화를 위해서는, 마을 내 주거 유형 및 형태에 따라 세분화된 소규모 클러스터 별로 주민 약속 및 개선할 디자인 요소 도출이 바람직하며, 둘째, 우리의 현실에 맞는 주민참여를 위한 회의 및 워크샵 진행 방법론이 연구되어야 하며, 셋째, 경관 개선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불법 증축에 대한 제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향후 지속적으로 노후주거지의 효과적인 정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주어진 시사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해외 사례 연구 등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양윤재, 양승호, 배용규, 소단위 적용형 재개발수법 연구, 도시설계, 1, 2000
2. 신종진, 임희지, 김태엽, 소규모 재개발에 의한 노후불량주거지의 점진적 정비수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계획계, 21(1), 2005.
3. 서수정, 이창호, 배용규, 현지개량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비수법 및 모델개발, 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 2006
4. 신종진, 임희지, 김태엽, 저층밀집주택지 환경개선사업의 소규모 공동주택 도입방안 연구, 22(1), 2006
5. 이창호, 서수정, 배용규, 현지개량사업 활성화를 위한 일본 노후주거지 정비수법 분석연구, 국토계획, 42(7), 2007.
6. 김찬호, 박현수, 정상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성과 평가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42(1), 2007.
7. 배용규 외, 밀집시가지 현지개량방식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의 유형화 및 정비방향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계획계, 24(9), 2008
8. 김현진, 구자훈, 이우종, 국내외 노후단독주거지 정비 제도 및 지원 체계 비교 분석, 한국도시설계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08
9. 문준경, 한성천, 채병선,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효과분석을 통한 개선사항에 관한 연구, 도시설계, 10(2), 2009
10. 國土技術政策總合研究所, 密集市街地整備のための集團規定の運用ガイドブック, 2007

13) 중곡 4동 경관협정 준비위원회, op. cit, 2009.07.22